

# '누구나 지갑 열게 만드는 기념품'

##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21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기념품 산업에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불어넣기 위해 응모 자격을 일반(35세 이상)과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응모 분야를 완제품과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로 나눠 지난달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768개 작품(완제품 일반 433점·청년 160점, 아이디어 청년 175점 등)이 접수됐다. 이 중 총 50점(일반 18점·청년 32점)이 수상했다.

대상(대통령상)은 청년(완제품) 분야의 '경복궁 단청 연필'이 차지했다. 단청의 아름다움과 나무 재료의 속성을 잘 반영해 장식성과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었다.

금상(국무총리상)은 한글에 대한 외국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청년(완제품) 분야 '판트 한글 베이직', 제주도 특장인 현무암을 모티브로 한 일반(완제품) 분야 '제주돌빵'에 각각 돌아갔다.

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단청을 타투에 접목한 단청 타투 스티커(청년 아이디어), 스니커즈에 한복의 유려한 선을 나타낸 '한복을 입은 스니커즈(청년 아이디어)', 한국 전통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복식 네임택(일반 완제품)' 등 총 3점이 쟁겼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20여 년간 우수 관광기념품 1900여 점을 발굴하며 국내 관광기념품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수상작은 청와대 사랑채 기념품점, 인사동 한국관광명품점 등에

입점할 기회를 얻는다. 관광공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품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관광공사는 수상작을 31일부터 9월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전시한다. 수상작 체험존을 마련하고, 수상작 중 20여 종을 현장 판매한다. 특히 현장 구매자를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방 때 활용한 기념품으로 유명해진 일명 '히니 굿즈'인 나전 손톱깎

이 세트(2016년 제19회 수상작)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입장료는 무료다. 관광공사 관광기념품 공모전 홈페이지(kov.visitkorea.or.kr/kor/souvenir/community/noticeList.do)에서도 공개한다.

관광공사 윤석구 인프라전략팀장은 "올해 기념품 공모전은 공모전 개최 이후 처음으로 응모 자격을 청년과 일반으로 구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선한 아이디어의 관광기념품 출품을 독려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청년 분야에서 우수한 상품이 많이 선정됐다. 앞으로도 관광기념품 산업에 젊은 층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21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복궁 단청 연필'.



여름밤의 신나는 문화장터인 진안군마을축제 '축제와 만나장'

## '8월의 마지막 밤, 신나는 야시장과 함께'

### '축제와 만나장' 오늘 저녁 6시 진안군청 광장서

여름밤의 신나는 문화장터인 '축제와 만나장'이 오늘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안군청 광장에서 열린다.

축제와 만나장은 제11회 진안군마을축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산물과 가공품, 수공예품, 베틀시장, 먹거리장터와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이 준비돼 색다른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한 버블쇼, 마술쇼, 손 인형극, 전통놀이체험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운 어린이광장이 별도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경품추첨 대회, 행사 인증샷 전송, SNS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흥산스와 무료이용권, 지역 흥산상품, 행사장 부스 상품권 등이 제공되어 장

터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문화공연으로는 주천초등학교 중창단 '음표비친구들', 청소년수련관 댄스동아리 '플로렌스', 피아노삼중주 클래식팀 'play with hobby', 어쿠스틱 듀오 '노티나무', 비보이 댄스팀 '맨오브핑크' 공연이 이어진다.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신애숙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서 "8월의 마지막 밤을 다양한 문화공연과 신나는 야시장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문의는 진안군마을축제 사무국(063-433-5445)으로 전화하면 된다. /진안=우태만기자

## 문화재청,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 보존 지원 추진

한국과 파키스탄이 간다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협력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주파키스탄대사관대사관의 '헤초 스님의 서역 기행 일리기' 사업과 연계해 파키스탄 교육역사문화유산부와 간다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헤초 스님의 서역 기행 일리기' 프로젝트와 문화재 보존처리장비 지원 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파키스탄 내 한국과 파키스탄 간 고대 문화교류 역사 부각과 현대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헤초 스님의 서역 기행 일리기'는 주파키스탄대사관대사관이 '왕오천축국전'과 신라 승려 헤초를 소개하고 파키스탄 내 헤초 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올해 5월 보존과학 전문가를 파키스탄 교육역사문화유산부에 파견해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우기에 수장고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유물에 지속적으로 손상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이에 수장고 보존 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보존을 위한 장비 지원과 유물관리 교육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 분야 보존 관리 기술과 체계를 바탕으로 간다라 문화 유물을 미래세대로 누릴 수 있는 보존·보호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고대 4대 문명 발생지인 인더스강을 끼고 있다. 중앙아시아, 중동, 인도 등과 접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있으나 과거 간다라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와 융합해 간다라 불교 미술이 처음 발생한 지역이다. 당시 불교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라 승려 헤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에는 헤초가 파키스탄 치트랄과 스왓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한국 불교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뉴시스



##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전국 132개 학교에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18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사업은 2014년부터 실시, 4년간 전국 244개 학교, 1만86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해왔다.

올해에는 지난해 교육 대상 70개 학교보다 63개 증가한 전국 132개 학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변화된 교육환경과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교안인 한복의 역사와 한복 입기, 한복 정리하기 외에도 예절 교육, 주머니 만들기, 직업에 따른 한복 체험(초등학생 대상), 김홍도 평생도 속 한복 체험 및 장편 표현하기(중·고등 및 성인 대상) 등 선택 교안 4가지를 추가로 개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더욱 체계화된 한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복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